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로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미사

기도서 508면(B해)

제1독서 : 지 헤 3, 1-9
제2독서 : 로 마 8, 31b-39
복 음 : 루 가 9, 23-26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
느냐?

(루가 9,25).

□ 강론



상속세 없는 유산

김진소 신부

사람이 어떤 역경과 곤궁에서도 자기 삶에 긍지와 자부심만 있다면 고통쯤이야 사는데 그런것이거나 하고 상식으로 이해하게 된다. 한국 천주교인은 아무리 자신을 뒤져봐도 무엇하나 탐탁한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까지 세계의 존경과 찬미를 받고 있다. 그것은 1984년 한국을 찾아오신 교종 요한 바오로 2세가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특출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되신 순교 조상상을 모신 덕이다.

교종께서는 뻔한 사실을 실감하도록 강조하셨다. "그분들은 혈통으로나 언어로나 문화로나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아울러 그분들은 피로써 증거한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부모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조상들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처럼 톱툰 조상님 덕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다시 순교 조상을 톱툰 생각해야겠다. 순교는 꼭 피흘려 진리를 증언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죽음과 고통이 순교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교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환난과 고통과 공포를, 장구한 세월을 견디며 신앙을 전해주시신 조상들이야말로, 삶으로 진리를 증언한 무혈순교자이다. 유혈순교자만을 순교자라고 고집하시는 하느님이라면 그분은 시체 애호가이시리라. "내가 그동안 피신하며 숨어 산 것은 내가 죽기를 자청하고 나서다가 행여 교만한 사람이 될까" 해서였다고 진술한 어느 순교자의 말을 생각하자. 이런 마음이 무혈순교자들의 공통된 신앙고백이다.

노골적인 박해가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친근감을 주는 조상은 무혈순교자이다. 그분들의 신앙을 흉내나마 낼 수 있다면 더 바랄게 무어있겠는가.

좋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믿으면서 자신은 준행하지 않는다면 "입술신앙"이라고 할 것이다. 천국은 입술만 가는 곳이 아니다. 호의호식하며 부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나는 가난합니다" 하면 무슨 웃음을 웃을까. 순교는 교리의 이론이 아니라 생활이요 실천이다. 우리가 조금만 결손해 진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순교정신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외양의 겉치레를 번들하게 한다고, 순교자를 모시는 우리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었다. 교종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순교자들의 증거를 한갓 추상적인 회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살펴봐야 하겠습니까?" 그렇다. 순교정신을 틀에 박힌 마음과 눈으로 볼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시선으로 찬찬히 봐야겠다. (교회사 연구소)



법관의 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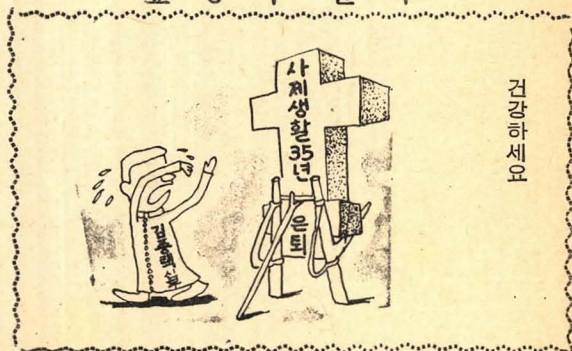
「원숭이 재판」이라는 우화가 있다. -두 마리의 고양이 가 치즈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나눌 것인가로 고민하다가 원숭이에게로 간다. 원숭이는 그 사건을 맡기로 하고 치즈를 잘라서 저울에 단다. 어느 한쪽이 무거울 때마다 원숭이는 그것을 잘라 먹는다. - 결국 고양이가 훔친 치즈로 재판을 한답시고 재미를 보는 것은 원숭이 뿐이다.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무거운 홍역을 앓고 있다. 법관의 인사문제를 거론한 짧은 글. 그리고 그 글과 관련된 인사파동이 사건의 발단을 이루고 있다. 급기야 대한 변호사 협회는 사법부의 독립문제를 염려하며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하고, 야당에서는 탄핵소추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장도 의견을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어쨌든 공정과 양심의 보루라 할 사법부가 단순한 화재꺼리 이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충정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국가라면, 그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이건 의원내각제이건 사법부의 독립만큼은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고 선언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해와 시비를 가리는 재판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법관의 자격과 신분보장, 인사의 독립 등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박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양심의 등불을 기대한다. 여기저기서 조그맣게 빛을 발하는 양심의 등불, 그것이 있기에 어둠속에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고 밝아오는 새벽에 희망을 걸 수 있다. 법관의 양심에 희망을 건다.

순정이 산책



김강하 세요

성서교실 255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코 8:29)

예수는 이회(二回) 이방순회(異邦巡回)를 마치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죽음의 길」을 돌진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한 각오,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최후 이방순회의 목적이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기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세상을 구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것, 죽음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것, 수난의 그리스도, 죽어야 할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필립보·가이사리아 향(向)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①예수는 이 계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케 하였다. ②베드로의 고백은 세계 역사상(歷史上) 최대 사건이다. 이 순간 구약성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교가 탄생되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歷史)는 그리스도 교사(史)이다. 그리스도 교는 베드로의 고백의 기초 위에 있다. 나자렛 목수의 아들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는 종교, 이것이 그리스도 교이다. 그리스도 교는 그리스도 교이다. 구세주 교이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이다. 이것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의 도덕교가 되고 마는 것이다. ③베드로의 고백은 예수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다분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였다. 예수 자신의 그리스도는 이와는 반대였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 참다운 그리스도 교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예수는 베드로의 고백을 가납하면서 이것을 정정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수난의 예고」인 것이다.



*** 주일학교 어린이 교리 경시대회 결과 발표 ***

축하합니다.

지난 여름 하계교리때 전주교구 어린이 모두가 함께 실력을 겨루었던 교리 경시대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교구내 43개(1개본당 불참) 본당 참가에 총 6,230명의 어린이가 참가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각 본당 교리교사님들과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체상☼(150점 만점)

최우수상-대야(122점)

우수상-술정이(121점), 장려상-고창(118점)

참가상-신풍·장제, 노력상-수류·장수

☼개인상 (21명)☼(100점 만점)

1학년 : 공동1위(90점) 둔울동-김미영 · 임실-안유진

3위(87점)창인동-강용구

2학년 : 1위(92점) 복자-강필수

공동2위(90점) 전동-신현준 · 삼례-최은화

3학년 : 1위(88점) 복자-오은주

공동2위(87점) 대야-이세봄 · 시기동-임희영

4학년 : 1위(89점) 대야-이연주

공동2위(88점) 신풍-구현숙 · 무주-김민주 ·

임실-박수미

5학년 : 1위(91점) 대야-오숙영

공동2위(90점) 복자-오경선 · 월명동-서정래

임실-엄태우

6학년 : 1위(96점) 전동-변선희

2위(93점) 팔마-이선희

공동3위(92점) 전동-이은하 · 임실-백경은

※ 위에 대한 시상식은 9월 29일(추석)에 각 본당별로 실시하되 우등된 상장과 상품은 교구장님을 대리토 본당 신부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손 일체
- 커튼지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밝은 눈, 맑은 눈

고려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 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개업인사말씀

시하초추지절에 귀백의 일익번창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소생이 금번 아래 장소에 권수삼센타를 개업하였아오니 많은 이용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취급품목 : 수삼, 건삼, 표고버섯, 건약초

권영곤 배상

전주시 서노송동 616-22 전화 74-3532

교 구 소 식

- ※ 각 본당 사무장님께 알립니다
출판사 추석 연휴(인쇄) 관례로 9월 29일, 10월 6일자 각 본당소식을 9월 2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크 대회: 오늘 오전 10시, 전북 학생회관, 중식제공
 2. 교구 혼인법원: 24일 오전 10시, 교구청
 3. 교구 사제 친목회: 25일 10시 30분 집결, 장소-유성 군인 휴양소
 4. 신앙대학 2학기 추가등록
2학기 입학자를 위한 추가등록 9월 25일까지, 교육국(☎ 0041-3)
 5. 여자 수도 성소피정
주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련 좋을까요? 10월 5~3일, 접수-5일 오후 4시
대상: 여고 1학년 이상·대·일반, 회비: 4천원, 장소: 가톨릭센터
준비물-미사도구·필기도구·세면도구
 6. 9월 은혜의 밤 철야기도: 28일 오후 10시~29일 새벽 5시, 효자동 본당
지도-박중신 신부님, 모든 신자들 참석 요망
 7. 전북지구 제1차 B·F 철야피정 안내
26일 저녁 8시30분~27일 새벽 5시, 전동성당 사제관 2층, 강의-김기곤 신부
준비물-성서·성가책·미사보·필기도구, 편리한 신발(치명산 참배)
 8. 감사합니다: 세상을 떠나신(권영일·수산나) 저희 모친의 영혼을 위하여 찾아주시고
기도와 미사봉헌 해주신 주교님들과 형제 신부님들과 교구님들께 삼가 인사드리며
감사드립니다-김중택 신부·(손자)김용태 신부
 9. 성소 후원금: 서울 성소 후원회-100만원, 감사합니다
- ※ 축! 영명: 27일 성 빈첸시오-이병호 신부님
29일 성 미카엘·가브리엘·라파엘 대천사-박정일 주교님, 안용기·
김종길·박종상·범영배·박찬길·경규봉 신부님 축하합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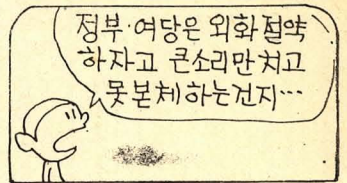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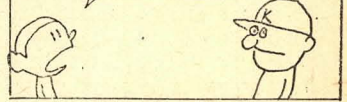
일 시: 9월 29일(일요일) 오후 4시, 장 소: 전주지구 교회묘지(솔개재)
집 전: 총대리 신부님과 전주 시내 사제단
미사예를 접수: 미사전에 각 본당 사무실에 접수 바람
별초 사례금: 필히 묘지관리 위원회에서 비치한 사례함에 넣어주시기 바람
기 타: 주일미사는 각 본당에서 참석하시기 바람
전주지구 교회묘지 관리위원회

전 주 교 구 농 민 대 회

일 시: 1985. 9. 23. 오후 3시
장 소: 전주 중앙성당
내 용: 1부-미사(주례: 박정일 주교님)
2부-농 민 대 회
3부-보 고 대 회
주 관: 한국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

요심이 (633) 김병오

서울국제육상대회입원은
100m달리기 2등한...



—성인병은 치료보다 예방을—

영지! 영지! 영지!

◎ 2천년도 훨씬 전부터 선조라
고 해서 만병에 사용되었다.
때로는 불로장수의 약이라는
전설까지 생긴 이상한 나무
새끼들.

—보진신문 83년 2월10일자—
불로선조 「영지」의 배일을 벗
긴다에서

◎ 영지의 효능

- *암 *당뇨 및 간염예방
 - *동맥경화·고혈압·중풍·어혈
 - *위와 장질환
 - *관절염 및 신경통
 - *기관지염 및 잔기능강화
 - *기타 성인병과 노화방지
- ◎ 봉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배하기 때문에 값도
싸고 양도 더 드립니다
*포장된 선물용도 있습니다

월성 영지농장

이리시 월성동
(글라라 봉세 수녀원 앞)
☎ 4773 · 28953
강 영 순(제노베파)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의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2496 28653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루리포니아)

열대어 수족관
비단잉어·거북·대형수족관
군산극장 앞
3-3674
임 의 웅(발레티노)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올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힐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29일 각 가정의 조상들의 위해 빠짐없이 미사에물 봉헌합시다
2.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오전 9시
3. 부녀회 월례회: 24일 어머니미사 후 성의있게, 빠짐없이 참석합시다
4. 견진성사 일정: 10월 27일 견진신청 마감일-10월 13일까지
5. 구역 봉사자 모임: 26일 오후 8시
6. 전자올겐 기금 신입합시다
7.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8. 공소 순회미사: 28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9. 금주의 전례담당: 제1조, 차주는 제2조가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433,720원 교무금: 68,000원
지난주 신축금: 9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에 있습니다
2. 각반장님 긴급소집: 공식미사 후 한분도 빠짐없이 회합실에 참석 바랍니다
3. 추석 합동 위령 및 추수 감사미사: 다음주일 추석 합동 위령미사 각각 정한 시간(봉투 뒷면에 있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견진성사: 11월 3일에 있습니다
5. 다음주 전례

Table with 5 columns: 미사, 해설, 1독서, 2독서, 기도. Rows include: 첫미사, 공식미사, 저녁미사.

□ 지난주 봉헌금: 일반-321,680원, 중·고생-8,170원, 주일학교-7,050원, 계-336,900원
교무금: 190,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빈첸시오 월례회: 27일 12시
3. 1지구 주일학교 가을 체육대회: 10월 3일, 해성학교
4. 청소년 신앙대회: 22일, 전북 학생회관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29일 오전 5시30분, 저녁 7시30분
6.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탐pr, 토-셋별pr
7.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기배 ②김운자
□ 지난주 봉헌금: 174,190원 교무금: 451,61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곧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 ☆ 축! 영세: 새로 영세 입교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영세자 축하식: 오늘 공식미사후, 소강당에서
1.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2. 오는 29일은 추석명절입니다
3. 젊은이 1일피정: 26일 밤 9시~12시, 주체-BF
4. 부활반 예비신자 모집
5. 수세식 화장실 공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6. 다음주 봉헌담당: 김경철 부부
7. 다음주 전례담당
8. 전동 울뜨레아: 22일 공식미사 후, 전원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874,140원 교무금: 400'0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절 우

- 1. 우정의 날: 25일 저녁미사 후
2. 봉사: 화장실 청소 및 잡초제거, 청년회 주관
3. 성가연습: 미사 전 30분간
4. 감사: 학생·청년체육대회에 수고해 주신 어머니
5. 금주전례: 해설-안현주, 독서-문병주·강성호
□ 지난주 봉헌금: 124,850원 교무금: 60,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선영들을 위하여 정성어린 미사에물을 봉헌합시다. 미사시간은 주일과 같습니다
2. 유아세례: 오늘 10시
3. 자모회: 공식미사 후
4. 주부 성서대화: 25일 오전10시-요엘·하깨·말라기
5. 건축헌금 납입자
□ 지난주 봉헌금: 440,790원 교무금: 388,000원
건축헌금: 220,000원